

- 주요 뉴스: 미국의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실적, 소비둔화 우려 완화, 위험자산 선호 강화를 유도
 - 유로존 7월 소비자신뢰, 사상 최저 수준. 향후 경기 불확실성 등이 영향
 - 영국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년래 최고치. 영란은행의 0.5%p 인상 가능성 증가
 -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경기회복 기대 등을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 완화, 기업실적 기대감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0.6%],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기술주 및 임의소비재 관련주 등이 상승을 주도
유로 Stoxx600지수는 은행 및 자동차 관련주 약세 등으로 0.2%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경계감 등이 상승폭을 제한
유로화가치는 0.5% 하락, 엔화는 약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유로존 경기침체 가능성 등으로 혼조 후 소폭 상승
독일은 '23년 성장둔화 전망' 등으로 2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312.9원, -0.0원) 보합, 한국 CDS 하락

		7/20일	7/19일	전일대비			7/20일	7/1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59.9	3,936.7	0.59%	국채 금리 10y	미국	3.03%	3.02%	1bp
	유럽	422.51	423.41	-0.21%		독일	1.26%	1.28%	-2bp
	중국	3,304.7	3,279.4	0.77%	CDS 5y	한국	48bp	51bp	-3bp
	일본	27,680	26,962	2.67%		중국	85bp	85bp	0bp
	한국	2,386.9	2,371.0	0.67%	위험 지표	EMBI+	-	475	-
환율	달러지수	107.05	106.68	0.34%		VIX	23.88	24.50	-2.53%
	유로화	1.0180	1.0227	-0.46%		WTI유	102.26	104.22	-1.88%
	엔화	138.21	138.19	-0.01%	원자재	구리	333.0	329.2	1.15%
	위안화	6.7558	6.7442	-0.17%		금	1,696.6	1,711.7	-0.88%
	원화	1,312.9	1,313.4	0.0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의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실적, 소비둔화 우려 완화위험자산 선호 강화를 유도

- 7/20일 기준으로 S&P500 가운데 60여개 기업이 2/4분기 실적을 공개. Rifinitiv에 따르면, 이 가운데 78.3%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 이는 지난 4개 분기의 평균 81%보다 소폭 낮지만, 1994년 이후의 평균 66%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
- 그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연준의 지속적인 통화긴축 강화 등으로 향후 경제 전망 관련 매우 부정적 시각이 다수. 하지만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들이 나오면서, 소비 등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도 이전보다 조금씩 긍정적으로 개선
- 특히 전일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의 경우 2/4분기 가입자 수가 97만명 줄어 당초 예상(200만명)보다 훨씬 적었으며, 매출도 전년동기비 13% 증가한 것으로 확인. 주당순이익 역시 3.20달러로 예상치(2.94달러) 상회
- Putnam의 Ellen Hazen은 이와 관련하여 소비활동이 예상보다 좀 더 나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진단. Kleinwort Hambros의 Fahad Kamal 역시 최근의 기업실적은 경제성장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평가
- 또한 Interactive Brokers의 Steve Sosnick은 그 동안 회의적 시각이 투자심리를 지배했으며 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최근과 같이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매도보다는 다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6월 기존주택판매, 2년래 최저 수준. 주택가격 상승과 금리인상 등에 기인

- 해당 건수는 연환산 512만건으로 전월치(541만건) 및 예상치(538만건) 모두 하회. 한편 기존주택의 중위 가격은 전년동월비 13.4% 내린 41.6만달러. 전국중개인협회의 Lawrence Yun은 잠재적 구매자의 주택 구입능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
- 한편 S&P는 연말이 되면 통상적인 첫 주택매입자의 경우 모기지 상환 금액이 소득의 28%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는 주택 구입능력이 모기지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위기 초기 이후 최저 수준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

■ 러시아 대통령, 노드스트림1 가스관의 재가동 예상. 다만 공급 축소 가능성 존재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21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강조. 하지만 수리를 맡긴 터빈을 회수하지 못했으며, 이 경우 일일 공급량이 3000만입방미터(최대 공급 용량의 20%) 줄어든 수 있다고 첨언

■ 유로존 7월 소비자신뢰, 사상 최저 수준. 향후 경기 불확실성 등이 영향

- 해당 지수는 -27로 전월치(-23.6) 및 예상치(-24.9) 대비 하락. 이번 결과는 라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유로존 경기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

■ Citigroup, 글로벌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은 50%

- Nathan Sheets 이코노미스트는 금년과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각각 2.9%, 2.3%로 제시. 이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장기 추세를 소폭 하회한다는 의미. 한편 미국과 유럽은 향후 12~18개월 기간에 약한 형태의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

■ 영국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년래 최고치. 영란은행의 0.5%p 인상 가능성 증가

- 해당 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9.4%로 전월치(9.1%) 대비 상승하면서 1982년 5월 이후 최고 수준. 이는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의 급등 등에 기인. 시장에서는 고물가 영향으로 영란은행이 8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5%p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

■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경기회복 기대 등을 반영

- 현행 1년 및 5년 LPR 금리(각각 3.70%, 4.45%)를 유지하기로 결정. 대외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경기회복 신호 사이에서 신중하게 접근. ANZ의 Xing Zhaopeng은 경제회복이 예상되기에 LPR의 추가 인하는 불필요하다고 평가

■ 호주 중앙은행 총재, 중립금리 도달을 위해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필요

- 로우 총재는 물가상승률을 2~3% 수준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책경로가 필요하다고 강조. 한편 중립금리는 적어도 2.5%가 되어야 하며, 이에 이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금리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21 현지시각 기준)

- ECB 및 일본은행 7월 통화정책회의, 미국 7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양호한 소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가능성 - Financial Times

(US consumers are bending but not breaking as prices soar. Can it last?)

- 미국은 6월 소매매출 증가와 양호한 2/4분기 은행실적 등으로 금리상승 및 고물가 속에도 경기연착륙 기대가 증가. 그러나 금년 개인저축률이 6%를 하회하며 '13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소비둔화 징후가 발견
- 또한 지난 주 공개된 연준의 베이지북은 식품 및 석유가격 상승 영향으로 소비 수요 둔화가 시작되었음을 제시. JPMorgan Chase 등 대형은행들은 2/4분기에 대손충당금을 대폭 확대하며 채무불이행 증가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
- 아울러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인상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경제활동 둔화 유도가 필요한 상황. 다만 부유층 대상의 재화와 서비스 수요가 견고하고, 양호한 6월 신규고용 등은 소비에 긍정적 신호

■ 개발도상국의 부채 조정, 구체적인 대책은 미흡 - Financial Times

(The world isn't prepared for a wave of sovereign debt defaults)

- 코로나 19로 인한 성장여력 악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수입국 비용 증가,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한 부채부담 확대 등은 개발도상국에 위협 요인. 이를 반영하여 스리랑카와 잠비아는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직면
- 선진국과 민간 채권자가 주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부채조정을 시도하지만, 주요 채권국인 중국이 관련 문제 해결에 소극적. 이에 향후 개발도상국의 부채 위기 해결은 이전의 경우보다 더욱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칠 소지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안, 수요 감소를 통한 고물가 해결에 긍정적 - 블룸버그

(No, Joe Manchin, Taxes Don't Cause Inflation)

■ 연준의 통화정책, 파급 시차를 고려하여 급격한 금리인상은 자제할 필요 - WSJ

(The Fed Shouldn't Raise Interest Rates Too Quickly)

■ 미국 달러화 강세, 미국 경제의 신뢰도를 상징 - 블룸버그

(The Strong Dollar Is a Vote of Confidence in America)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